

아·태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 간 국제기구

회원가입 안내

회원 현황

06.

+ 정회원

-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시, 인구 100,000명 이상

+ 준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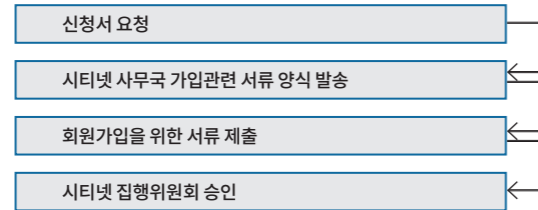
- 정회원과 기업회원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 및 기관

+ 기업회원

- 사기업

회원가입 절차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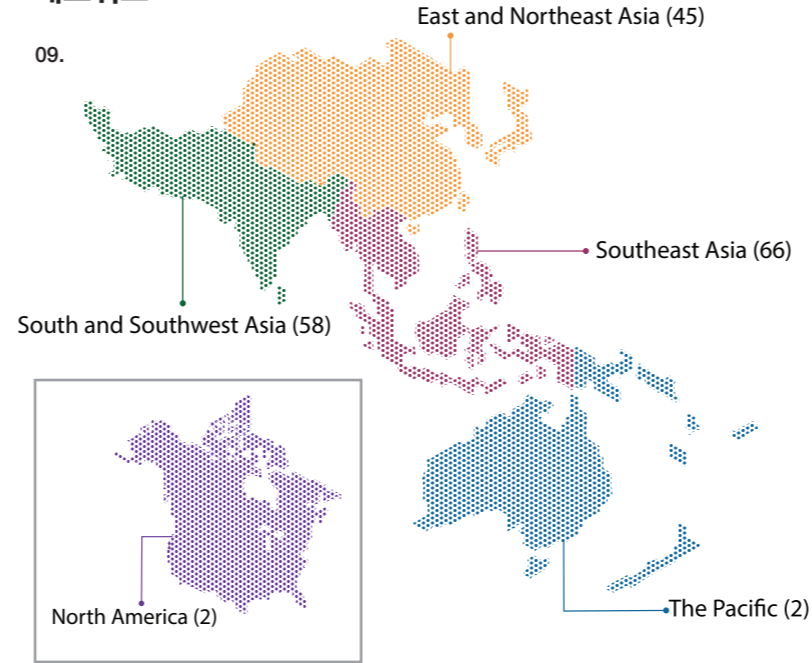
연회비

08.

연회비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된 다음 연도부터 발생합니다. 연회비는 해당 도시 소속 국가의 1인당 GDP와 해당 도시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티넷 사무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시티넷 네트워크

09.



시티넷 회원

10.

173 전체회원
110 정회원
58 준회원
5 기업회원

T. +82-2-723-0648
E. info@citynet-ap.org
W. www.citynet-ap.org

CityNet Secretariat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10층

CITYNET
THE REGIONAL NETWORK OF LOCAL AUTHORITIES
FOR THE MANAGEMENT OF HUMAN SETTLEMENTS

OVER 30 YEARS OF
KNOWLEDGE EXCHANGE &
INNOVATIVE SOLUTIONS FOR URBAN
CHALLENGES

비전

01.

+ 시티넷은 아시아 태평양(아·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인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비정부기구, 기업 등이 모여 결성한 국제기구입니다. 1987년 UNESCAP(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UNDP(유엔개발계획), UN-HABITAT(유엔 인간정주계획) 합작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설립되어 170개의 도시, 기관, 기업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도시 간 국제기구 중 가장 큰 네트워크와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시티넷의 목표는 인구 증가, 주거 및 식수 부족, 위생문제 등 도시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 시티넷은 도시 역량 강화 사업, 도시 간 협력사업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도시 인프라 문제 해결,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달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티넷 협력

02.

- + 사례 공유**
 - 도시문제 해결과 우수 사례 공유
 - 도시 테마별 국제 워크숍 운영
 -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 사례 공유
- + 프로젝트 개발**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맞춤형 사업 개발

분과

03.

시티넷은 도시가 직면한 우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의 분과(클러스터)를 결성하고, 워크숍, 프로젝트, 캠페인과 같은 회원 간 공동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주관도시: 자카르타시
공동주관: 스리랑카 인간환경연계기구(HELP-O)



재난관리

주관도시: 요코하마시
공동주관: 마카타시



인프라

주관도시: 서울시
공동주관: 쿠알라룸푸르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주관도시: 바리살시
공동주관: 인도 지방자치연구소(AIILSG), 방글라데시 도시학센터(CUS), 인도 주택도시개발공사(HUDCO), 필리핀 도시연맹(LCP)

4개의 분과는 회원들과 도시 문제를 발굴을 위해 협력하며 프로그램 활동에 회원들의 주인의식을 확대하도록 권장하는 네트워크 기반이 됩니다.

국가 지부

04.

국가지부는 시티넷 사무국 탈중심화 전략의 핵심으로, 다양한 국가의 새 회원들을 모집하고 기존 회원도시들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티넷은 국가지부 활동을 통해 한 국가 내에 위치한 시티넷 회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전문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용이하게 합니다. 시티넷 산하 국가지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

05.

시티넷은 서울시와 UNESCAP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개발 이행과 정책 관련 오픈 데이터를 공유하는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